

BA



SIS

 새마을운동중앙회



ISSUE NO.12
ISSN 2799-9343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Prologue

지난해는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기틀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2024년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기틀을 발판 삼아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아가 지구촌까지 확대하여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늘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한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Contents

2024 01+02 제12호



06 **신년사**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광대훈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회장 김종복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회장 조승희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전문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박경수

12 **용띠 새마을가족**
 용띠 새마을가족이 전하는 새해 인사

14 **어울림**
 2024 새마을운동
 새로운 기쁨을 다져 세계로, 미래로

18 **울림**
 “이제 새마을운동은 ‘지구촌 환경운동과 생명운동’으로 진화해야 할 때”
 -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20 **누림**
 구석구석 즐거움을 숨겨놓은 골목
 - 부산광역시 여행



24 **새마을 아카이브**
 새마을부녀회 기록물 편

26 **새마을 사람들 1**
 새마을로 이뤄낸 해맑은 매력
 「2023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
대상·최우수상 전남 장흥군 ‘해맑은 수동마을 공동체’

30 **새마을 사람들 2**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공동체
 「제43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부문
최우수상 서울 송파구 방이동 ‘조롱박작은도서관’

34 **대학새마을동아리**
 새마을운동을 통해 느낀 봉사 의미
 「2023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
대상 한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38 **지구촌새마을운동**
 라오스, 피지, 동티모르에서 꽃피우는 새마을운동



42 **중앙회 소식**

44 **시·도 소식**

46 **현장은 지금**

54 **새마을 통통통**

발행일
 2024년 2월 15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광대훈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매거진 <새벽종>을
 휴대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Webzine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도출하는 한 해가 될 것



친애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보람찬 순간도 아쉬웠던 순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지난 아쉬움과 다가올 기대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방향에 따라 착실히 길을 다져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좋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전국 청년새마을연합회 출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개최,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 지구촌새마을운동 학술세미나 등 내실을 더욱 다지며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가는 우리의 각오와 자세는 남달랐고, 추진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오롯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애써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마을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작년 한 해가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기틀을 다진 한 해라면, 올해는 그 기틀을 토대로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해입니다.

먼저, 지난해 새마을운동의 동력 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만든 방안들이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하되, 현장과 잘 소통하면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새마을운동을 책임 있게 확산시켜나가면서 이를 새마을운동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국가가 기존 10개 국가에서 13개 국가로, 시범마을도 12개가 추가돼 56개 마을로 늘어납니다. 중앙회와 관계기관, 현지정부, 마을주민들이 유기적으로 소통·교류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여 책임 있게 이행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희망과 긍정을 잃지 않던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로 올해도 힘차게 뛰어주십시오.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서로에게, 이웃에게, 또 지역사회에 큰 영감을 줍니다.

따뜻한 한 끼를 챙기고, 온정어린 안부를 묻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살피며,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노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새마을운동이 쉼 없이 해온 일이자, 100년 뒤에도 이어질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소중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는 지금, 새마을운동의 모든 것을 다시 정렬합니다. 청년과 더불어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새롭게 달라진 새마을운동의 원년을 만들어갑시다. 모두가 합심하면, 새마을운동이 만드는 가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치가 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따뜻한 세상이 되도록,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루는데 헌신해 오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염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갑진년 새해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곽대훈**

다 함께 연대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회장 김종복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이 밝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는 새마을운동에 혼신을 다하는 새마을지도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새해는 밝게 또 빛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해 전국 18개 시도, 시군구 협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경상북도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제창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기념비 건립을 통해 1970년 '새마을가꾸기' 운동으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의 뿌리를 다시 한 번 찾아 자부심을 느꼈고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새마을운동에 대해 다짐하였습니다.

올해 제 바람은 우리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가 지역에서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를 더 배려하고 다 함께 연대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해소하고 노력은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새마을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현장을 지키고 새마을운동을 발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선도하는 새마을지도자가 되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더 나은 새마을지도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모두가 청룡의 기운을 품어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힘을 보태어 세대를 아우르는 새마을운동이 될 것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회장 조승희

사랑하는 전국의 새마을 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푸른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더욱 활기찬 마음으로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힘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여름철 기습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와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준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마을가족 여러분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깨끗하게 뭉쳐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부녀회 회원분들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캠페인 전개,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활동, 고부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실로 다양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며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자원재활용품 수집하기, 나무 심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지구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작은 일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세대를 아우르는 젊은 지도자를 영입함과 동시에 기존 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예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새마을연합회의 발족은 기존 지도자들에게 참신함과 신선함을 더해 다시 재도약하는 새마을운동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새마을운동이 더욱 확산·발전되어, 미래의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항구적인 운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새마을부녀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힘을 보태주셔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시작하고, 이어 주변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한 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마을운동과 새마을부녀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은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기쁨, 평화가 가득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노사가 배려와 화합을 통해 상생하는 기업문화 정착해주길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전문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4년 갑진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직장회원사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직장·공장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해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재해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규모 7.8과 7.5강진으로 5만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최근 새해에는 일본에서 7.6의 지진으로 20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리비아에선 열대성 폭풍으로 대홍수가 발생해 4천여 명이 숨지고 1만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난민과 고아가 발생하고, 경기 침체,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부동산 경기 위축 등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공장새마을운동 회원사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마을정신(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스스로 역할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노사가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정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갑진년 올해에도 국민 화합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다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직장·공장새마을가족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아 직장·공장새마을가족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아 품위와 배려가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길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박경수

전국의 새마을문고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마을문고는 지난 62년 동안 전국 곳곳의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운동을 추진하며 지역 단위 독서문화운동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독서문화공간과 도서를 제공하고 독서생활화운동과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며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열정을 다하신 전국 새마을문고지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은 가정과 학교에서 독서생활화, 현장 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확대, 1읍면동 1재능기부 활동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바로 서는 독서생활화를 실천하는 문고운동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마을, 독서 생활화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아 품위와 배려가 이웃 간에 면면히 흐르고 넘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마을문고 가족이 최일선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새마을문고가족 여러분!
 2024년 올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꿈과 목표를 이루시고 이웃과 마음의 양식을 나눔으로써 모두가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띠 새마을가족이 전하는 새해 인사



2024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다. 전국에서 새마을운동 확산에 힘쓰는 회원들, 그중 올해의 주인공들인 용띠들을 만나 새해 인사와 함께 올해의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김미경 | 1964년생
대구 중구부녀회장

2024년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지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동안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며 새마을지도자라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구 중구 새마을부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더욱 뜻깊은 해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이 새마을가족 모두에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병일 | 1976년생

직장 · 공장 총복 제천시협의회

저는 올해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특히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가족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는 용이 구름을 뚫고 비상하듯 하시는 모든 일마다 건승하시고, 새마을과 함께하는 모든 분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동주 | 2000년생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새마을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주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그동안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도전과 도전을 통한 경험으로 한층 성장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길 다짐해 봅니다.

또한, 공주시새마을가족들을 비롯해서 전국에 계신 새마을가족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젊은 청년층으로도 더 확대되어 청년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현영분 | 1964년생

문고 경기 남양주시지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새마을사업들이 조금씩 기지개를 폈던 2023년을 지나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기운을 얻어서 새로운 한 해에는 더 큰 희망을 꿈꾸며 이전만큼 많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처럼 남다른 기세로 더욱 성장하는 문고, 남양주시새마을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마을가족 모두 2024년 활기차고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성운 | 1964년생

서울 노원구 상계3·4동협의회회장

지난해 이룬 성과와 보람, 또 시련과 좌절을 뒤돌아보며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건너간다'라는 동심공제(同心共濟)란 말처럼, 새해에도 협동과 공동체 정신으로 지역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이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원구 상계3·4동협의회는 올 한 해 봉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미소 | 1988년생

대구 달성군새마을회

저는 한국 남자가 좋아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김미소(라오스 명-람폰)입니다. 지난해는 저에게 특별한 해였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저희 이들과 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부녀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과 만날 기회도 많았습니다. 올해 역시 남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보살피고, 저와 이웃을 위한 새마을운동에도 더 열심히 참여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제가 아직 한국어가 서투려 4살 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올해는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장경민 | 1988년생

충남 당진시 청년새마을연대

지난 몇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2024 갑진년에는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전국의 청년연대가 서로 상생하며 자기 계발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 새마을운동 새로운 기틀을 다져 세계로, 미래로

지난 2023년 새마을운동은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2024년 새마을운동은 지난해에 이어 미래지향적인 새마을운동으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기틀을 다지고 다시 뛰는 새마을운동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글. 편집실 사진. 홍보실



불안할수록 가장 중요한 기본

세계적으로 팬데믹 여파, 각종 재난과 전쟁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내외적 경제·안보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 복지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주의 확산과 소통 단절, 경기침체, 물가 불안 등으로 세대·지역·계층 간 갈등과 사회불안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한파, 이상고온, 가뭄, 산불 등 재난·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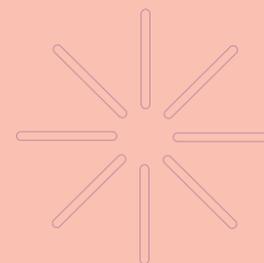
저출생·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이동, 지방 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팬데믹, 전쟁과 분쟁, 기후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는 이미 세계에 걸친 모두의 문제로, 새마을운동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새마을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이웃을 위한 나눔과 돌봄, 소통과 교류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은 곧 모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와 지식공동체 회복이 최우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성은 가져다 주었지만, 비대면 사회가 발전하며 삶의 정서에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절된 관계로 인해 우리는 옆에 사는 이웃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립된 관계, 소통의 부재는 지역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는 이기주의, 양극화, 범죄 증가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최근 몇 년 사이 '공동체'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관계를 더욱 극적으로 단절시켰던 팬데믹 이후 무너진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새마을운동은 지난 2023년 새로운 비전을 통해 지역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식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앞장서 왔으며, 올해도 그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에 날로 번창하고 있는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지난해 창단한 청년새마을연대의 젊은 패기를 더해 새롭게 변화될 새마을운동 활동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자산이자 큰 힘은 전국 곳곳에 있는 회원들이다. 새마을운동 회원들을 통해 새마을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와 홀몸 어르신, 복지 소외 차상위 계층 등에 '안부 문기사업', '청년새마을조직사업', '며느리봉사대 활동',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집 고쳐주기', '사랑의 빨래방 운영', '방과 후 아동지도교실 운영', '돌봄 가정 책 읽어주기 및 학습지도', '생필품 지원사업'과 같이 지역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구체적인 맞춤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시하는 동시에 선진 시민의식 교육, 각종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이익을 저해하는 이웃분쟁 근절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 독서캠프, 독서경진대회, 휴가철 피서지 이동문고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등 지역주민의 문화접근 기회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독서 생활화를 장려하고 국민문화 수준을 향상하는 동시에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활동 등을 통해 창조적 지역문화 창달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탄소중립부터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은 더 이상 모른 척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새마을운동 회원들은 꾸준히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 안 쓰는 플러그

뽑기부터 시작해 줍깅, EM(유용미생물군)흙공 던지기, 재활용품 모으기 사업, 나눔장터 운영 등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모두가 친환경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순환경제를 몸소 실천했다.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은 개인의 친환경생활 실천뿐만 아니라 산림, 해양, 토양 등 자연 생태를 보호·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나무 심기, 토양오염 유해 물질 수거 및 예방 캠페인, 해양정화활동 등을 통해 청정국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고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운동이 되었다. 지구촌 개발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요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라오스, 피지, 우간다, 동티모르,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도미니카공화국, 부룬디, 잠비아, 탄자니아, 타지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온두라스 등 13개국 56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이 조성될 예정이다. 각 마을의 특색 있는 인프라에 농업기술과 새마을운동을 접목하여 현지 마을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이를 통해 마을이 자립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별 특성, 사업연차 등을 반영한 맞춤형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현지화 촉진을 위한 거점 국가별 현지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지향적 도약을 향한 새로운 기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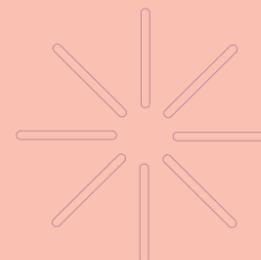
지난해 새마을운동은 큰 성과를 얻었다. 특히 '대학새마을동아리'와 '청년새마을연대'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인 새마을운동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된 해이기도 하다.

이를 기점으로 2024년 새마을운동은 신규 새마을회원 확충과

청년조직 활성화 전략 등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속 가능한 자생기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역량 있는 신규 새마을지도자를 확충하고 기존 회원 고령화와 신규 회원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연령별 회원 확충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새마을지도자가 될 청년에게 해외봉사 프로그램, 지역새마을회 연계 봉사활동, 청년새마을조직 재능기부활동, 대학새마을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참여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과 교육프로그램 다변화, 교육요원의 지도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연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홍보콘텐츠 내실화와 메타버스, 새마을운동물기록물, 유튜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극대화해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할 예정이다. ↕



“이제 새마을운동은 ‘지구촌 환경운동과 생명운동’으로 진화해야 할 때”

글.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필자의 고향은 지리산과 남해를 사이에 둔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다. 진주 시내에서 북쪽 지리산 방향으로 10여km 가면 산청군과 접경한 농촌 마을이다. 1970년 7월 준공된 남강댐이 대규모 보강 공사를 거쳐 1999년 12월 다목적댐으로 거듭남에 따라 상류에 있던 고향 마을은 안타깝게도 수몰 지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유년기에 뛰어놀던 고향 들녘 풍경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맑은 날이면 눈 덮인 지리산이 더 가깝게 다가와 보이는 곳에서 태어난 필자는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함께 초·중·고교 시절을 보냈다. 지금은 세계적 농촌 계몽 운동으로 성장한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 즉 근면(勤勉)·자조(自助)·협동(協動)을 필자는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있다. 지금도 노란색 바탕에 세 줄기 초록색 잎이 새겨진 새마을기 문양을 보면 누구보다 강렬한 친근감을 느낀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후렴)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서로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조국을 만드세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작곡했다는 ‘새마을노래’가 1972년 6월 20일 대도레코드사에서 음반으로 처음 발매됐더니, 아마도 필자는 초등학교(당시엔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새마을노래를 들었던 것 같다. 새마을노래를 행진곡 삼아 책가방을 메고 시골길을 신나게 걸어서 약 15리(6km) 정도 떨어진 초등학교를 오간 기억이 난다.

박 대통령은 “잘살아 보세”라는 강렬한 한 마디 구호로 국민의 가슴 속에 변화의 불을 지폈고, 마음이 움직인 국민은 누대에

걸친 가난 탈출과 조국 근대화 건설의 사명감을 갖고 밤낮으로 노력했다.

새마을노래 가사를 보면 당시 고향 마을의 빠른 변화상을 그림 그리듯 압축해 보여준다. 필자는 어린 시절 직간접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 농촌 마을 주민들은 참 부지런했고, 초가집을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했다. 마을길도 넓혔고 농지구획정리도 착착 진행했다. ‘헌 마을’은 말 그대로 새마을로 깔끔하게 변신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글로벌 10위권 선진국으로 도약한 발판은 ‘건국의 영웅’ 이승만(1875~1965) 대통령에 이어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1917~1979)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구 달서구청장(3선)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곽대훈 회장이 2022년 9월 취임하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내걸고 새마을운동의 글로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2024년 새해에도 이런 방향으로 대약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은 지구촌이란 말이 널리 퍼질 정도로 글로벌 시대다. 지구는 동글지만 세계는 편평하게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전 지구적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후위기 수준을 넘어 기후재앙이 닥쳐온 이 시대에 인류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탄소 제로’ 정책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플라스틱 배출 최소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앞장서야 한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부득불 환경 운동, 생명 운동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해외 13개국 56개 시범마을을 운영 중이다. 해외에서 새마을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지금보다는 확대돼야 한다. 국내외 대학생 등 청년의 참여와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를 꾸준히 증액하고 있지만, 새마을운동에 배정되는 예산은 여전히 미미하다. 국회는 물론이고 행정안전부가 새마을운동에 좀 더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명실상부한 지구촌 새마을운동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

구석구석 즐거움을 숨겨놓은 골목

부산광역시 여행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제2의 수도이다.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는 해운대는 마린시티의 야경이 더해져 더욱 화려해지고, 광안리는 수만 개의 드론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수놓는다. 이러한 화려한 부산 말고 진짜 부산을 만나고 싶다면 골목 여행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골목으로 안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이 당신을 반겨줄 것이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골목

전포 카페거리

부산 동천로 일대에 있는 전포 카페거리는 지난 2017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 52곳 중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골목이다. 골목 초입에는 전포 카페거리를 알리는 듯 볼트와 너트로 만든 구조물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공구와 커피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조합은 이곳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 본래 이곳은 버스 공장과 함께 철물과 공구를 파는 상가로 가득한 지역이었으나, 버스 공장의 이전으로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서 쇠락했다. 이후 2009년쯤 도시에서 몰려든 청년들이 가게에 내려앉은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고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카페를 하나둘 오픈하기 시작했다. 빛바랜 간판을 한 철물상가와 빈티지한 감성을 물씬 풍기는 카페가 공존하는 이색적인 풍경에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 거리를 전포 카페거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기분 좋은 커피 향과 국적을 넘나드는 이국적인 요리, 여기에 거칠고 투박한 공구 상가가 함께하는 다소 이질적인 풍경은 구석구석 보고 또 봐도 새롭다.

녹슨 망치 소리 울리는 골목

강강이 예술마을

도개교인 영도대교 우측 남향에 위치한 강강이 예술마을. '강강이'라는 이름은 과거 녹슨 배의 표면을 벗겨내기 위해 망치질하던





- 1
강강이 유람선을 타고 바다 위에서 감상하는 부산남항과 대평동 수리조선소 풍경
- 2
초량 돼지갈비 골목
- 3
온천장 풍류길 코스 중 하나인 금강공원 내 케이블카
- 4
푸른 바다와 흰 골목이 만들어내는 풍광이 인상적인 흰여울문화마을

소리에서 유래했다. 강강이 예술마을이 되기 오래전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조선소가 세워진 곳이다. 과거 명성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선박 부품을 수리하는 조선소들이 마을을 돌아보다 보면 이따금 강강 내리치는 망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교통이 발달하여 지금은 언제든 영도와 남포동을 오갈 수 있지만, 과거엔 영도도선을 이용해야만 오갈 수 있었다. 지금은 영도와 남포동을 잇는 배가 필요없지만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하나로, 주말이면 하루 세 번 강강이 유람선을 타고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다. 또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무빙>의 촬영 현장 중 하나인 양지다방에서 녹지한 쌍화차를 한잔하며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주로 영양가 높은 음식을 찾았다. 당시 주위 도축장에서는 도축하고 남은 돼지부산물 등을 연탄불에 구워 팔았는데 이것이 초량돼지갈비 골목의 시초이다. 아직도 골목에는 30~50년 된 식당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어스름해진 저녁, 두툼하게 썬 돼지갈비를 불판 위에 올리면 골목에는 달큰한 냄새가 진동하고 출출한 이들이 삼삼오오 초량동 돼지갈비 골목으로 모여 든다.

알록달록 삶이 새겨진 골목

감천문화마을 골목

산자락 아래 가지런히 계단식으로 집들이 놓인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이 힘겹게 살던 삶의 터전이다. 팍 찻던

국민 입맛 사로잡은 골목

초량 돼지갈비 골목

전국에 갈비 하면 떠오르는 포천의 이동갈비, 수원왕갈비, 서울의 마포갈비와 함께 한때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것이 부산의 초량갈비다. 다른 지역의 갈비는 소고기로 만든 소갈비지만, 초량의 갈비는 돼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맛은 타지역의 유명 갈비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맛을 자랑한다. 초량갈비의 시작은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항 등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내리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고된 노동 후



마을은 19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인구가 점점 줄기 시작했고 텅 빈 마을을 살리기 위해 감천문화마을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특이한 지형구조와 경치가 더해져 입소문을 타고 관광지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했다.

감천문화마을의 진면목을 보려면 골목 구석구석을 걸어야 한다. 인기가 좋은 감내2로 마을 입구에서 시작해 미로처럼 끝없이 이어진 골목을 걸으며 뮤직비디오 촬영지, 곳곳에 숨겨진 조형물, 벽화, 다양한 상점 등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역사와 자연, 문화를 한 번에 즐기는 골목

동래 온천장 풍류길

온천장 풍류길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에서 시작해 금강공원, 스파운슬길, 파전골목 등을 거쳐 되돌아오는 코스로 온천장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멋과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다. 특히 금정산 자락에 있는 금강공원은 울창한 숲은 물론 기암괴석과 계곡 등 볼거리가 풍부해 부산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2004년 무료로 개방을 시작한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금강원'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한 곳으로, 다양한 수목이 심겨 있으며 동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또한 공원 안에는 부산민속예술관, 해양자연사박물관, 케이블카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 여행객에게도 인기가 좋다.

금정산 자락에서 역사와 문화, 자연을 즐겼다면 온천장으로 내려와 언 몸을 녹여보자. 동네 이름인 온천장에서 알 수 있듯 온천으로 유명하다. 신라시대 당시 발견되어 고려와 조선 시대에 왕족들과 양반들이 왕래하며 온천을 즐겼으며 개항 이후 본격 개발



되기 시작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끊임없는 발길이 이어진 곳이다. 가장 유명한 곳은 허심청과 녹천온천이며 거리 곳곳에는 노천 족욕탕 등이 조성되어 있어 온천장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다.

가파른 절벽과 푸른 바다가 맞닿은 골목

흰여울문화마을

피난민이 살기 시작해 형성됐다는 마을의 배경과 절벽 아래 지어진 환경조차 감천마을과 비슷하지만 흰여울문화마을은 전혀 다른 풍광을 선보인다. 골목 끝에 올라서면 가파른 절벽 아래로 청량한 바다가 보이는데 마치 여기까지 오르느라 수고했다고 주는 선물 같다.

흰여울이라는 이름은 봉래산 기슭에서 굽이쳐 내리는 물줄기가 마치 흰 눈이 내리는 것 같다 하여 지어졌다. 2011년 12월 무렵부터 낡은 가옥을 리모델링하면서 지금에 이르렀고 골목골목을 누비다 보면 영도 주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곳을 찾는 이들이 빠지지 않고 인증사진을 남기는 곳은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가 쓰여 있는 담벼락이다. "이렇게 어땠어요?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까!" 진우네 집 담벼락이 있는 골목을 시작으로 흰여울길은 모두 14개의 골목으로 이어져 있다. 구석구석 절로 지갑을 열게 하는 소품샵과 먹음직스러운 디저트가 가득한 카페, 한숨 쉬어갈 수 있는 서점 등이 있으며 느리게 걸을 수록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풍경들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파도가 철썩이는 역동적인 동해와 달리 잔잔한 바다 지평선에 점점이 떠 있는 배와 반짝이는 윤슬이 가득한 풍경은 여행객들에게 평온한 마음과 여유를 전하는 듯하다. ☺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고 사회 진출의 폭을 넓히다

새마을부녀회 기록물 편

새마을운동은 가부장제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농촌의 여성들은 쌀을 조금씩 모아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등 저축을 장려하는 활동을 펼쳤으며, 힘든 작업 현장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한 마을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하고, 지도자로 선출되기도 했다. 도시의 여성들은 대체로 환경보존운동, 자원 재활용 캠페인, 이웃 나눔 활동 등을 벌였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고 사회 진출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 활동 중 하나인 새마을어머니회는 도시 및 아파트단지 부녀 중심으로 모금 및 성금 활동, 계몽운동, 환경운동, 예의 지키기 운동 등 도시새마을운동의 역점 사업을 담당했다. 또,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운동을 위한 부녀조직으로서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농촌의 새마을부녀회는 여러 부녀사업을 통해 마을사업의 자금을 마련했으며 마을사업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함으로써 농촌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 회원은 대체로 10~60세의 부녀자들로서 소득증대사업(저축활동, 구판장사업), 생활개선사업(가정의례간소화, 가족위생) 활동을 전개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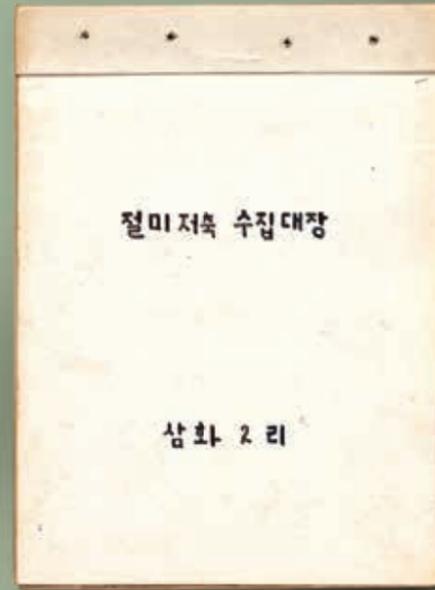
🌱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된 '잘살기 운동'이다. 활동은 문서와,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영화필름으로 제작됐다. 특히 성공적인 농촌 부흥의 원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써 중요한史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023년 '새마을 아카이브' 코너에서는 한국 농촌 근대화의 실록인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가치와 의의를 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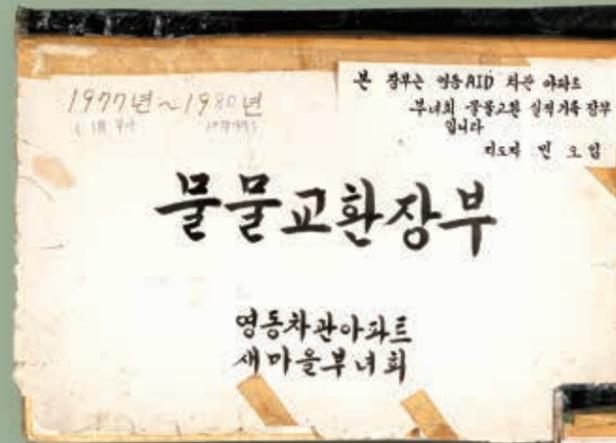
『새마을 교재(부녀지도자 과정)』
1975년 | 15×26 | 새마을지도자연수원 | 국가지정기록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자로 참여한 이 교재는 새마을정신계발, 자세확립, 성공사례, 분임도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대통령특별보좌관, 가난한 농군학교장, 서울대학교 교수 그리고 각 행정기관의 임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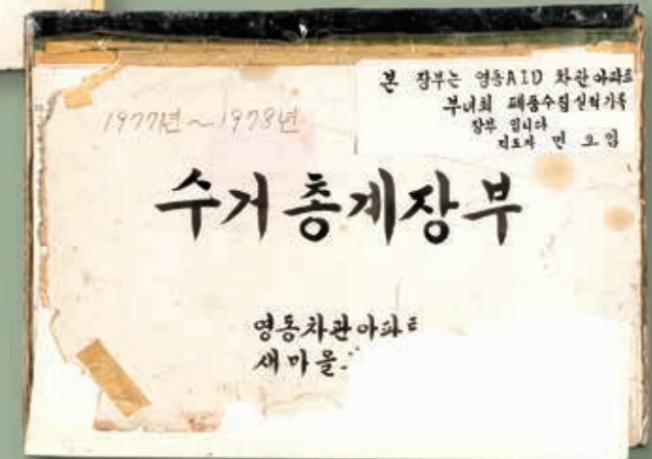
『합리적인 식생활 개선을 위한 알뜰주부의 음식솜씨』
1979년 | 12.5×18.5 | 사단법인 마을문고본부
1973년부터 사단법인 마을문고에서 발간한 42종의 새마을총서 중 하나로, 당시 곡류와 채소류 위주였던 한국인 식단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영양식품에 대한 소개, 식단 작성법, 과학적인 조리법, 농번기의 공동취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 소개되어 있다.



절미저축 수집대장
1970년 | 19.5×26.5 |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2리 | 유네스코기록
절미(節米)란 부엌에 '절미단지'를 두고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 수만큼 숟가락으로 쌀을 덜어서 모으는 것을 말한다. 농촌의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이렇게 모은 쌀을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서 기금을 마련했다. 절미저축 수집대장에는 개인별 실적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다. 쌀을 덜어낼 때는 큰 부담이 안 되지만 나중에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농촌 여성들은 절미저축에 적극적이었다. 절미저축은 새마을부녀회의 결속력을 강하게 만들어줬다.



물물교환 장부(영동AID아파트부녀회)
1977년 | 42.5×30.5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AID차관아파트부녀회 | 유네스코기록



수거총계장부(영동AID아파트부녀회)
1977년 | 42.5×30.5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AID차관아파트부녀회 | 유네스코기록
1977년 1월~1978년 12월까지 서울의 영동AID차관아파트 새마을부녀회가 작성한 재활용품수거 및 판매 대장이다. 주요 수거 물품은 신문, 책, 고철, 가마니, 집병, 상자, 우유, 헌옷, 헌이불 등이었다. 모은 기금은 주로 고아원 성금으로 쓰였다.

새마을로 이뤄낸 해맑은 매력

「2023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

대상 · 최우수상 전남 장흥군

‘해맑은 수동마을 공동체’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는 마을이 있다.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함께하는 마을. 무엇보다 함께하는 순간이야말로 더욱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마을. 전남 장흥군 해맑은 수동마을이 바로 그곳이다.

글. 장희주 사진. 김병구

나와 너에서 ‘우리’가 되는 마법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함께일 때 어려운 일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것이 쉽고 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향하는 목표가 크고 먼 곳이라면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해맑은 수동마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의 의미를 되살려 마을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을 합치고 있다. 공동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강해정 부녀회장은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에 걸맞은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 마음이 부녀회에서 시작해 청년회를 거쳐 마침내 마을 전체로 확장되면서 마을은 ‘해맑은’이라는 이름처럼 해맑게 변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마을 행사가 아니면 이웃끼리 만나는 일이 좀처럼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면 얼굴 볼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했죠. 처음에는 부녀회끼리 모여서 앞치마를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 마을 어르신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스카프를 만들었어요. 천연염색을 해서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이후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모색했죠.” 만들기에서 시작된 공동체 사업은 마을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다. 마을에 제일 필요로 했던 건 마을 입구에 자리한 까맣고 커다란 돌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종종 사람들한테서 돌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이다. “돌이 위치한 입구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남자들의 일손이 있어야 했고, 청년회에 도움을 요청했죠. 청년회는 농기계를 사용해 주변을 정리하고 부녀회에서는 풀을 뽑으면서 마을 입구를 정비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녀회, 청년회에서 마을노인정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다 같이 마을 입구를 정비하는 데 성심성의를 쏟았죠. 잔디와 꽃도 심고 나니 정말 예쁜 미니 정원이 만들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내기도 했다. 수동마을 지도를 만들면서 마을의 역사를 찾은 것이다. “마을 지도를 제작하면서, 역사도 같이 보여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을 역사를 너무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마을의 역사를 들었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더라고요. 몰랐던 사실인데 수동마을이 원래는 숲을 만들던 동네였대요. 그렇게 귀동냥을 통해 소중한 우리 마을의 역사를 알게 됐고 마을의 정체성을 찾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부녀회, 청년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모두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나, 마을 행사가 개최될 때면 마을이 온통 들썩이기 일쑤다. 그렇게 해맑은 수동마을은 공동체의 의미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만나자, 배우자, 해보자

공동체 사업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단결력을 높이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활동명도 만들었다. '만나자, 배우자, 해보자'가 그것이다. 단어 그대로의 뜻이 담겼다. 일단 '만나서' 의 논하고, 만났으면 무엇이든 '배우고', 마을을 위해서 무엇이든

'실천하자'는 의미다.

“만나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만나자는 의미가 고요.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려면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배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죠. 비누·액자·다육식물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렸어요. 일주일에 두 번은 건강 체조도 진행하고 있어요. 다들 활기도 넘치고 무척 좋아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함께 실천해 보자 한 거죠. 그래서 마을 지도·농약 폐기물 수거장 만들기, 안길 청소하기 등을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실천했어요.”

처음부터 마을 주민을 동원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강해정 부녀회장의 역할이 컸다. 마을 주민에게 일일이 부탁하고 전화를 돌렸다. 시작은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이기 시작했다. 실천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는 마을의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이 모여서일까. 2023년에는 '전국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에서 해맑은 수동마을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동시에



1



2

받았다.

“마을 전체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성과가 정말 많아요. 부녀회를 비롯한 청년회 총무들이 주춧돌이 되어 도움을 준 덕분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미란 마을부녀회 총무와 재무업무를 맡아준 이분옥 회원의 도움이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상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상식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참석했는데 수상 내용을 듣고 모두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로 뿌듯한 순간이었죠.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함을 만든 일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기존에는 농약병이 그냥 밭에 버려지던 상황이었는데 수거함을 도입한 후로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무척 잘했다고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윤미희 사무국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마을에서 직접 제작했죠. 나중에는 농약병을 가져온 만큼 부녀회와 청년회 회비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 해맑은 마을을 위한 모색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을 디딤돌 삼아 해맑은 수동마을은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마을 전체가 머리를

모아 의기투합하기 때문일까. 앞으로 기대되는 활동도 많다.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영화 보는 날'을 만들고, 영화를 보며 함께 부침개와 같은 간식도 만들어 먹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배움의 혜택도 채워나갈 예정이다.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나 수동마을의 주된 농산물인 마늘을 활용한 식품 만들기가 그것이다. 해맑은 수동마을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함께 실천해 나갈 방법을 찾는다. 이 모든 활동과 노력은 역시나 '함께'라는 원동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다음 행보는 어떤 모습일까. 마을 이름처럼 모두가 분명 해맑을 것임에는 분명해 보였다. 🌱

1 마을회관에 모인 해맑은 수동마을 공동체

2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중인 모습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공동체

「제43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부문

최우수상 서울 송파구 방이1동 '조롱박작은도서관'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라고 말했다. 방이동 주민들에게 조롱박작은도서관은 어떤 존재일까? 추측건대, 잠시 쉬다 가는 쉼터이자 지식을 채워주는 곳, 서로를 이어주는 관계의 시작이자 소통의 도구일 것이다.

글. 왕보영 사진. 김병구

규모는 작지만 존재 가치는 결코 작지 않은 도서관

서울 송파구 방이1동 주민센터 2층에 있는 방이1동 '조롱박작은도서관'은 '2023 대통령기 제43회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부문 최우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에 내로라하는 도서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얻은 성과라 더욱 의미 있는 수상이었다.

“2022년에는 송파구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2023년 11월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문고운영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번에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에서 작은도서관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30여 년 만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상 이후 이용자를 비롯해 그간 도서관을 후원해주신 분들, 주민센터 관계자 등 많은 분이 축하해주셔서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조롱박작은도서관을 맡고 있는 김영희 회장이 당시를 회상했다.

현재 도서관 회원은 21명, 이들의 평균 나이는 고작 39세다. 엄마를 따라왔던 아이들이 이젠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엄마와 함께 봉사한다. 평균 나이가 젊다 보니 행사를 기획할 때도 뻔하지 않은 트렌디함으로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독서경진대회는 물론, 전통 민화 그리기, 독서회, 각종 스터디, 역사 탐방, 피서지 문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허브조아 프로그램 등 이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만 해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인데 남다른 추진력과 단합력을 보유한 덕분에 아이디어 회의부터 업무 분담, 자료 조사와



1
방이동 특산물인 조롱박에 전통 민화 그리기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2
방이동 조롱박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지식채움소이자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기획안 작성, 심지어 포스터 제작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탄탄한 조직력과 열정, 그리고 화합으로 다져진 조롱박작은도서관, 그러니 이번 경진대회에서의 수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변함없는 가장 좋은 벗

도서관의 시작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트 지하와 방이1동 주민센터 지하, 1층 주민센터 구석 한켠을 지나 지금의 자리에 자리를 잡은 건 지난 2000년의 일이다.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에는 모든 과정을 수기로 했어요. 컴퓨터가 보급된 이후 모든 책을 등록하고 라벨 작업을 하는 데만 꼬박 두 달이 걸렸어요. 독수리타법이었던 제 손이 작업 이후엔 키보드 위를 날아다닐 정도였죠. 곳곳에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봉사를 시작한 지 벌써 27년인데, 책을 가까이하니 정서적으로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하는 이들이 좋아 세월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1997년부터 도서관과 함께 한 가장 오래된 회원인 권엄전 씨가 도서관과 함께한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전했다.

지금의 도서관 이름은 2003년 방이1동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조롱박'에서 이름을 따왔다. 매년 봄이면 지역 주민들이 모여 조롱박쉼터에 조롱박 씨앗을 심고, 쉼터를 휘감은

덩굴 사이로 주렁주렁 매달린 박이 영그는 가을이면 한데 모여 '조롱박축제'를 연다. 마을에 축제가 열리면 도서관 회원들도 덩달아 바쁘다. 마을 축제 이야기가 나오자, 몇 해 전까지 도서관 회원으로 각종 봉사에 참여했던 민화 강사 이미란 씨가 이야기를 꺼냈다.

“마을의 명물이 조롱박이잖아요? 그래서 마을 축제 때 조롱박에 전통 민화를 그리는 체험을 진행했어요. 지난해에는 축제를 비롯해 9회 정도 진행했는데, 도서관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물감 조절이 쉽지 않은 아이들은 색연필로, 어른들은 민화 전용 물감으로 나이에 따라 재료도 달리했죠. 다소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전통문화를 거부감 없이 전할 수 있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 문화를 만드는 데도 도움 됐다 하니,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했어요.”

각종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도서관은 주민들의 좋은 벗이 되어 준다. 조롱박작은도서관은 아이들에게는 학원을 오갈 때 잠시 쉬어가는 쉼터이길, 어르신들에게는 심심할 틈 없는 벗이 되길, 조용하고 엄숙한 도서관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한 곳이길 희망한다.

조롱박처럼 모두의 꿈이 영그는 한 해가 되길

코로나19로 모두가 조용할 때 조롱박도서관 회원들은 아이들이

그린 독후활동으로 조용히 나 홀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렇게 시작한 전시는 이제 참여 학교가 4개교에 달하고, 참여 학생 수는 500여 명에 이른다. 그 수가 송파구에서 진행되는 독서경진대회 참가자를 넘어섰다. 독서경진대회에 제출할 아이들의 그림과 글을 선정하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늘 즐거운 고민의 연속이다. 조롱박축제, 한성백제축제, 피서지문고 등 각종 행사가 있을 때면 다른 도서관이 대체할 수 없는 각종 프로그램 때문에 몇 날 며칠 자리를 지켜야 할 때도 있지만 주민들과 웃고 소통하며 오히려 좋은 기운을 얻는다는 그들. 다재다능한 재능과 열정으로 끝없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들에게 올해의 이루고자 하는 바를 묻자 모두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자기개발이라 답한다.

“가끔 저희에게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책은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북큐레이션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희가 더 많이 공부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독서문화지도사를 비롯해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미 벌여놓은 프로그램들이 많아 외부에서의 활동을 늘리는 것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올해는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되었으면 해요.”

김영희 회장의 말처럼 회원들 모두 독서문화지도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자격증 등 끝없는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그간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던 3만여 권의 도서 중 파손의 정도가 심하거나 수년간 대여가 없던 책, 너무 오래된 책 등 2만 1천여 권의 책을 몇 달에 걸쳐 폐기했다. 올해 순차적으로 책을 채울 예정인데 아무 책이나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덩달아 바쁠 예정이다. 그간 이용자들이 신청한 희망 도서와 전문 기관 추천 도서, 베스트셀러 및 신간 도서 목록을 체크하고 살펴봐야 한다. 게다가 방학을 앞둔 시기에는 영유아와 초중고생을 위한 도서 비중을 늘리고,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독서경진대회나 역사 또는 민화 등 독서를 매개로 한 프로그램 진행을 앞둘 때는 관련 도서 비용을 높이는 등 연령대와 난이도, 시기도 고려해야 한다. 각자의 직업도 있는데, 가정도 돌보며 강도 높은 봉사까지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회원들의 열정과 애정이 뒤받쳐 주기 때문이 아닐까.

책은 인생의 험준한 바다를 항해하는데 다른 이들이 마련해 준 나침반이고 망원경이라 했다. 오늘도 책과 함께하며 배움을 놓지 않는 조롱박작은도서관 회원들. 분초를 다투며 더 나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이들 덕분에 방이1동은 오늘도 더 넓은 지식의 세계로 순항하는 중이다. 🌟



새마을운동을 통해 느낀 봉사의 참된 의미

「2023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

대상 한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지난 2023년 12월 27일~28일, 천안 소노벨리조트에서 2023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평가대회는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간 화합을 도모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 동아리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올해 명예의 대상은 한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가 수상했다. 한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를 이끄는 손은서 회장을 만나 올해의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글. 왕보영 사진. 김병구



Q –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힘쓰고 싶은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학년 손은서입니다. 저는 2023년 ‘한라대 새마을동아리’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Q – 한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한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는 지난 2022년 6월에 발대식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회원 수는 45명으로 교내 다양한 학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학새마을동아리가 따뜻한 공동체와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저희 동아리가 여느 대학새마을동아리와는 다른 점을 꼽자면 지자체와 함께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입니다.

Q – 이번 평가대회는 전국 58개 대학새마을동아리가 참가했는데요, 서면 평가와 사례발표 평가, 그리고 동아리 전체 회원의 투표로 이뤄지는 현장평가로 진행되는 평가에서 우수 활동을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한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는 교내외 지역 환경정화 캠페인,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 봉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감자 심기 및 캐기 활동,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 어버이날 행사,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활동, 사랑의 연탄 배달 활동 등 공동체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참여한 봉사 프로그램만 41건에 달할 정도로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노력을 많은 분들께서 값지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너무나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지면을 빌려 새마을운동 관계자들 및 소중한 한 표를 주신 타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Q – 대학새마을동아리에 참여하시기 전, 새마을운동은 어떤 이미지였나요?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에 새마을운동이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이뤄졌다고 글로 읽고 귀로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알긴 했지만 젊은 세대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 아직도 새마을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대학새마을동아리가 생긴 후 수많은 대학생이 이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이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1
2023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받은
한라대학교새마을동아리

Q – 한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는 지난해 어떤 운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셨나요?

저희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저희 새마을동아리와 원주시 흥업면새마을회, 인근에 있는 강릉원주대 캠퍼스까지 힘을 합쳐 도시락 나눔, 김장 김치 담그기 및 배달, 연탄 배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민·관·학이 모두 힘을 합치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 ‘온마을방송국 온마을데이트’, ‘2023 놀면 뭐하니? 새마을 뭐하니?’ 등이 특색 있는 활동도 돋보입니다.

2023년 7월, 한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 2명은 피지, 키르 기스스탄에서 진행된 ‘제1기 대서동 해외봉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평소 저희에게 많은 관심을 쏟던 지도교수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알려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 방송국인 ‘온마을 방송국’에 출연을 제안하셨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어서 너무 떨렸지만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새마을 동아리 그리고 해외봉사 활동에서 느낀 경험을 생생히 전달한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Q – 새마을동아리의 활동이 대학 내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지자체공모사업 등에 공모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와

추진력이 돋보이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기획하게 된 계기,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 등이 있었는지요.

2022년 김장 김치를 소외계층 댁에 배달할 때의 일인데요. 이를 보시던 다른 소외계층 이웃에게 “우리도 어려운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하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돕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똑같이 어려운 환경인데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는 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도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중앙동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업을 진행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업자를 등록했고, 이를 통해 2023년에는 2022년보다 230명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장 김치를 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 새마을운동, 새마을정신을 직접 겪어보니 어떤가요?

윗세대의 새마을운동과 정신을 MZ세대들이 이어받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이 뜻깊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동아리 활동 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었던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지금은 저희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더 많은 사람에게 뻗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이웃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전한다는 것이 활동할 때마다 놀랍고 새롭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Q – 대학새마을동아리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이를 계기로 청년새마을연대라는 큰 결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에 새마을운동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일이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할지’ 등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여 모은 의견을 각 학교의 회장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 곧 2024년 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을 모집할 텐데요, 새마을운동의 매력을 알려주세요.

새마을동아리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동아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실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새마을동아리를 통해 국내외 해외봉사를 하면서

수많은 교훈을 얻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에 더해 타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장학금 등 셀 수 없을 만큼의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동아리를 통해 발전하는 나 자신과 더 따뜻해지는 공동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Q – 끝으로 2024년 새마을동아리의 계획과 바람,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023년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로 이어갔다면, 2024년은 탄소중립실천을 중점에 두고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EM(유용미생물군)흙공 던지기, 플로깅, 제로웨이스트활동 등을 통해 많은 이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고 관심을 갖는 일에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 올 한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참여해 준 한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들과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지도교수님, 그리고 원주시새마을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2
원주 온마을방송국 온마을데이트에 참여 중인 모습



3
도시락 나눔 봉사 활동 모습

라오스, 피지, 동티모르에서 꽃피우는 새마을운동

2023 동계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

대학새마을동아리와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이 함께한 2023년 동계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활동이 지난 1월 1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피지, 라오스, 동티모르 등에서 각각 펼쳐졌다.

글. 편집실 사진. 홍보실



2023 새마을운동 동계 해외봉사단, 대학새마을동아리와 청년새마을연대가 함께 해 지난 1월 17일 새마을운동중앙회 본관 4강의실에서 2023 동계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 발대식이 열렸다. 특히 지난해 7월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으로만 구성되어 진행됐던 하계 해외봉사단과 달리, 이번 2023 동계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은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과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이 함께해 더 큰 의미를 더했다. 본격적인 해외봉사에 앞서 70여 명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원들은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 동안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현황, 파견국 문화 및 역사, 자원봉사자 윤리, 국가별 활동 계획 등 해외봉사를 위한 사전교육을 받았다. 17일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해외봉사단 활동 소개를 시작으로 현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보건 교육과 한국어 교육, 문화교류를 위한 K-POP 댄스 시연을 선보였다. 이날 대학새마을동아리와 청년새마을연대 봉사단 대표는 새마을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지구촌공동체 일원으로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봉사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객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발대식에서 "대학새마을동아리와 청년새마을연대의 해외봉사를 통해 현지 주민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계 곳곳으로 새마을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는 동시에 해외봉사단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당부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려가는 미래, '라오스'

라오스와 새마을운동과의 인연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안전행정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 학사이 마을, 폰헤 마을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로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9년까지 8개 마을의 시범마을을 운영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 새마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라오스 대부분의 시범마을에서 진행된 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성과로, 번덕스러운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됐다. 현재 라오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사업은 4차까지 진행 중이다. 1차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학사이 마을과 폰헤 마을에서 진행됐다. 이 기간에 두 마을에는 마을안길 포장, 새마을교육, 마을회관 건립, 특용작물 재배 및 버섯재배 하우스 건립, 가축 은행 사업 등을 진행했다.



2차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링산 마을과 팍텡 마을에서 진행됐으며, 마을회관 보수와 마을안길 포장, 가족 은행 사업 등을 전개했다. 또 각 마을의 특징을 살려 링산 마을에는 바나나와 파파야 농장, 양어장을 확장하고 팍텡 마을에서는 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과 버섯재배 사업을 펼쳤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3차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은 나중 마을, 나케오 마을, 쫘 마을, 쨍 마을에서 전개됐으며, 마을안길 포장, 비가림 하우스, 버섯 재배, 양어장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항쌍싸왕, 후아이쌍, 폰옹암 마을에서 시작한 4차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역시 마을안길 포장, 방역물품 지원 등과 같은 기본 시설 정비를 시작으로 온실 사업, 비가림 하우스, 초등학교 개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라오스 동계 해외봉사에서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은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은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각각 활동을 펼쳤다.

대학새마을동아리회원들은 후아이쌍 마을, 북이라이 마을 등에서 학교 수리 활동, 비가림 하우스 수리 등의 봉사 활동과 체육, 음악, 미술 등의 놀이 수업, 미용 봉사 등을 추진하고, 청년 새마을연대 회원들은 자생마을에서 비가림 하우스 수리 등을

돕고, 문화 교류,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새마을정신과 새마을운동을 교류하며 이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 피지

지난 2018년 2월 피지 청소년체육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업무협약체결을 시작으로, 4월 피지 정부는 실라나 마을, 나바바투 마을, 나이마시마시 마을 등 3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7개 후보 마을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뒤 2020년 실라나 마을, 마우 마을, 나이마시마시 마을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로 선정해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실라나 마을에서는 마을안길 포장 사업과 마을회관 보수 사업을, 2021년에는 마을회관 증축과 마을안길 포장 을 추가로 실시했다. 마우 마을에서는 2020년 마을안길 포장 과 소교량 설치, 대피소 공사, 식수 탱크 구입 및 마을 하수구 정리 등의 사업을 전개했으며, 2021년에는 식수사업 완공에 이어 대피소 완공, 쓰레기 소각장 등을 설치했다. 나이마시마시 마을에서는 2020년에 공동화장실 보수, 분리수거장 설치, 마을회관 보수를, 2021년에는 마을회관 개보수, 화장실 개선

등의 사업을 펼쳤다.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은 실라나 마을과 마우 마을 그리고 자생마을인 와이니미꾸투 마을 등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제 막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만큼 정화조 건설, 부녀회관과 초등학교 개보수, 방파제 축대 지지대 설치, 마을 창고 설치 등 기본 설비 조성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연날리기, 윷놀이와 같은 한국 민속놀이와 마스크팩과 네일아트 등을 이용한 이·미용 봉사, 의료봉사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교류 하고 소통하며 열정적인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특별한 인연의 시작, 동티모르

2002년 유엔평화유지군으로 동티모르에 파병된 국군 상록수 부대가 새마을운동을 전파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동티모르 새마을운동. 이후 상록수 부대의 평화유지 활동과 함께 당시 5 개 마을에서 마을회관, 학교, 진료소 건립과 벽돌공장, 염소 은행, 구판장, 가족 은행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도자, 마을 주민 등을 초청하여 새마을교육을 실시했으며, 2016년 새마을운동 신규사업국 선정 건의를 통해 그해 10월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동티모르 국가행정부 장관 간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1차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에서는 루이라이 마을, 마우로 마을, 차이바차 마을, 차 울루뚜루 마을 등에서 마을회관 건립, 수도시설개선, 마을안길 포장, 마을센터창고 건립 등과 같은 환경개선 사업과 의식 교육, 청년기술 교육, 유치원 개보수 등을 통한 문화 및 지식 함양에 힘썼으며, 바나나 재배, 양계 사업, 돼지 사육 사업, 영농 사업 등을 통한 소득 증대도 도왔다.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2차 시범마을 사업은 벨로이 마을, 비켈리 마을, 셀로이카라익 마을에서 진행 중이며,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급수시설 및 관개수로 설치, 하우스 작물 사업 및 돼지 축사 건축 등 앞으로 전개될 새마을운동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마을회관 건립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동티모르로 파견된 해외 봉사단원들은 비켈리 마을, 부이바오 마을 등에서 공공 화장실 건설 등을 추진해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 또한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양계장 등을 건설해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했으며, 체육, 음악, 미술, 이·미용 등의 봉사로 현지 주민들과 교류하고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



중앙회 소식

2024 01 + 02 제 12 호



1. 아프리카 3개국 새마을운동 현장 방문 (23.11.20.~12.7.)

곽대훈 중앙회장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새마을운동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자 잠비아, 부룬디, 우간다 3개국으로 순방을 다녀왔다. 곽 회장은 3개국의 새마을사업 추진 상황과 협력사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새마을운동 추진·확산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3. 2023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 (23.12.14.)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마을공동체 관계자 및 발표자, 사무직원, 평가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우수 마을공동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1개 시도 시범마을 공동체 중 14개소가 출진해 사례를 공유했으며, 대상 겸 최우수상은 전남 장흥군 해맑은 수동마을 공동체가 수상해 사업비 800만 원과 상장을 수여받았다.



2. 2023 주한대사관 관계자 새마을교육 (23.12.14.)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마을운동 협력국(20여 개국) 주한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과 유학생을 초청해 1일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과 확산을 위한 정부 및 외교 공관의 역할, 국가별 새마을운동 성공 추진사례 등을 공유했다.



4. 대통령기 제43회 국민독서경진대회 (23.12.19.)

새마을문고중앙회(회장 박경수)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기 제43회 국민독서경진대회를 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43회째를 맞는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는 각급 조직, 독서문화공간 및 재능기부 동아리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격려하고 홍보하고자 마련됐으며 문고중앙회장을 비롯한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문고지도자 및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5. 지구촌새마을운동 학술세미나 (23.12.13, 12.20.)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한 지구촌 새마을운동 학술세미나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의원회관과 12월 20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제3강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금까지의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7. 2023 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 (23.12.27)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12월 27~28일 소노벨 천안 리조트에서 2023 대학새마을동아리 연말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회원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활동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회장, 시도새마을직원, 64개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32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전국 우수동아리 12개를 대상으로 시상이 이뤄져 한라대학교 새마을동아리가 대상으로 선정돼 시상금 300만 원과 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6. 새마을운동 청년홍보단 새럽3기 해단식 (23.12.22.)

새마을운동 청년홍보단 새럽3기 해단식이 지난해 12월 22일 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영상크리에이터로 구성된 새마을운동 청년홍보단 '새럽(SAELUV)' 3기 8개 팀은 지난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새마을운동의 생생한 현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영상 콘텐츠 83건을 제작해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8.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현충원 참배 (1.3.)

곽대훈 중앙회장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1월 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박경수 새마을문고중앙회장과 김환학 사무총장을 비롯해 서울시새마을회장단,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곽 회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분향한 후, 현충문에 마련된 방명록에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을 위해 180만 새마을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헌신 봉사하겠다"라는 내용을 적고 참배를 마무리했다.

시·도 소식

서울 | '올겨울도 함께해요', 따뜻한 겨울 나눔 사업 전개

서울특별시협의회(회장 우중호)는 지난해 12월 22일 사회적 약자를 돕는 '행복한 동행 올겨울도 함께해요' 사업을 전개했다. 영하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우중호 협의회장과 25개 구협의회장 등 50여 명은 영등포구 쪽방촌 40세대에 연탄 8,000장과 겨울 이불을 전달했다. 부녀회(회장 조동희)는 지난 1월 12일 신년 첫 회의를 열어 임기를 마친 부녀회장단에 감사패와 공로장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부산 | 살맛 나는 지구촌공동체 만들기 앞장

부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제중모)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라오스를 찾아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라오스 뻑산군 후아이 남윤 마을을 찾은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들은 새마을 도로 건설을 지원하고 학교에 학용품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구촌새마을운동 협력사업에는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에서도 동참해 지원 물품 마련에 힘을 보탰다. 지난 1월 10일 새마을회관 강당에서는 대학동아리 회원과 지도교수, 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 해외봉사단 부산 출정식이 열렸다.



대구 |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직장을 잡(JOB)아라!

직장·공장새마을운동대구광역시협의회(회장 권기준)는 지난해 12월 28일 중구 일원에서 직장·공장 회원사와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80여 명이 참석해 세대공감 워크숍을 개최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직장을 잡(JOB)아라! 주제로 '우리 고장 기업탐방'의 시간도 가졌다. 회원사 강사에게 직접 듣는 직장 이야기, 삼국지 강연 등을 듣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와의 소통·공감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대구광역시새마을목련회(회장 송경진)는 지난 1월 15일 한영아트센터 화영홀에서 신년인사회와 월례회의를 개최해 새해 인사와 주요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인천 | 갑진년 새해, 힘차게 뚝겠습니다!

인천광역시새마을회(회장 김익식)는 지난해 12월 7일 하버파크호텔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앞장선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 새마을운동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5일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2024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인사와 새로운 활동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문고(회장 정재수)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마을회관에서 대통령기 제43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인천 시상식을 열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광주 | 지역문화 진작과 독서 생활화에 기여

새마을문고광주광역시지부(회장 김동노)는 지난해 12월 5일 새마을회관에서 대통령기 제43회 국민독서경진대회 광주광역시 예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목 심사위원장과 수상자, 새마을문고지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공연과 심사평, 시상, 수상작 발표 등이 이어졌다. 이날 독후감 단체부 6개 팀, 독후감 개인부 36명, 편지글 부문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작품은 '행복한 글오름'이라는 문예지에 게재, 배포할 예정이다.



울산 | 전국 최초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조례 제정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지난해 12월 28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청년새마을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 유공자·단체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 | 공동체운동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회장 임한석)와 부녀회(회장 엄미숙)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전북 완주군새마을회(회장 구생희), 완도군새마을회(회장 홍안기)와 지역결연사업을 통해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대강화 및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미세먼지 제로 선언'

경기도부녀회(회장 서영숙)는 지난해 12월 5일과 6일 전북 임실 일원에서 '상생협력 워크숍 in 전북 임실'을 개최했다.



강원 | 강원 새마을운동 평가 보고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박형배)는 지난해 12월 11일 스키아카데미 라벤더홀에서 2023년 강원 새마을운동 평가보고회를 열고 좋은 만들기 사업과 도부녀회(회장 전미용)가 주관하는 새마을 돌봄 희망노(老)를 사업을 평가하고 시상했다.



충북 | 청년과 함께하는 충북새마을운동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이화련)는 지난해 12월 2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남너지도자와 청년·대학생 5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과 함께하는 충북새마을운동'을 주제로 2023 충북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충남 | 2023 충남 새마을지도자대회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이경용)는 지난 1월 10일 도새마을회 2층 회의실에서 이경용 충남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한 15개 시군새마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 | 새마을함성 어워드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구자강)는 지난해 12월 21일 도새마을회 7층 회의실에서 대학동아리회원, 청년연대회원, 도새마을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대학동아리&청년연대 새마을 함성 어워드를 개최했다.



경북 | 새벽이와 마을이 공공저작물 개방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이종평)는 지난 1월 3일부터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된 새마을캐릭터 '새벽이와 마을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남 | 시군협력화운동 시상식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안화영)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남자유회관 대강당에서 '2023 활기찬 경남! 시군협력화운동'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시·군 지회별 새마을운동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유공회원 표창 수여와 함께 새마을운동에 앞장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은 지금

공동체 문화 조성

• 서울 용산구협의회(회장 손성열)는 지난해 12월 21일 관내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240세대에 연탄과 이불 65개를 전달했다. 부녀회(회장 서연순)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마을회관에서 관내 저소득층 아동 및 사회복지시설(혜심원, 모자원, 해오름빌)에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선물을 전달하는 행복딜리버리 산타원정대 사업을 실시했다.



- 서울 성북구 돈암1동부녀회(회장 서해인)는 지난해 12월 4일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층 20세대에 장조림 및 밑반찬을 전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문고 서울 강북구 번1동지부(회장 조영숙)는 지난해 12월 28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주민센터에 기부했다.
- 서울 은평구 대조동부녀회(회장 이재순)는 지난 1월 11일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성금 50만 원을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서울 금천구 시흥1동부녀회(회장 운영자)는 지난해 12월 18일 올해 김, 미역 등의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으로 구청에 기탁했다.
-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조용준)는 지난해 12월 22일 관내 쪽방촌 40세대에 연탄 8,000장과 이불 40채를 전달하는 '약자와의 행복한 동행' 사업을 펼쳤다.



• 서울 동작구지회(회장 김태완)는 지난해 12월 1일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찾아 LED 전등 교체를 해주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했다.

- 서울 강남구부녀회(회장 박수경)는 지난해 12월 20일 지회에서 홀몸 어르신 및 취약 계층 200세대에 밑반찬 6종을 전달했다.
- 인천 중구새마을회(회장 윤경원)는 지난해 12월 29일 구청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층 가구에 떡국떡 600kg을 전달했다.
- 인천 동구새마을회(회장 김민철)는 지난해 12월 25일 관내 취약 계층 및 소외계층 300세대에 김장 김치 300상자를 전달했다.
- 인천 미추홀구부녀회(회장 강화옥)는 지난해 12월 15일 시청 앞 애들광장에서 관내 소외계층에 직접 담근 김장 김치 300상자를 구청에 기탁하는 '2023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을 진행했다. 문학동부녀회(회장 우삼순)는 지난해 12월 13일 관내 초등학교 학생 5명에게 장학금 3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전달했다.
- 인천 연수구 연수2동부녀회(회장 한재분)는 지난 1월 8일 복지관에서 관내 어르신 90여 명의 급수 활동을 전개했다. 연수3동협의회(회장 이창길)는 지난해 12월 15일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 62세대를 위한 '사랑의 김 나눔' 사업을 펼쳤다.
- 인천 남동구 간석2동부녀회(회장 정복순)는 지난 1월 5일 미역, 다시마 등의 판매수익금 50만 원을 관내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간석3동협의회(회장 김용만)는 지난해 12월 19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소외계층 및 저소득 장애인 20세대에 라면, 굴, 김 등 식료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식료품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인천 부평구협의회(회장 한만일)는 지난해 12월 19일 노인문화센터에서 영화 <노래로 쓰아 올린 기적>을 무료 상영하는 시네마 천국을 진행했다. 부평5동부녀회(회장 박정희)는 지난 1월 10일 새마을금고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쌀 200kg을 전달했다.
- 인천 계양구 계산2동부녀회(회장 이진미)는 지난해 12월 12일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층 이웃 30세대를 위해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을 펼쳤다.
- 인천 서구부녀회(회장 권오분)는 지난해 12월 28일 관내 홀몸

서울 · 인천 · 강원

- 어르신 50세대에 '사랑의 삼계탕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 문고 강원 춘천시지부(회장 이희순)는 지난해 12월 7일 관내 아동센터를 찾아 여성용품 1상자(6묶음)를 전달했다. 퇴계동협의회(회장 함순천)와 부녀회(회장 김정숙)는 지난해 12월 26일 관내 한부모가정을 찾아 집수리 봉사를 펼쳤다.
- 강원 원주시 반곡관설동협의회(회장 박선호)와 부녀회(회장 조명자)는 지난해 12월 7일 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농사 수확물 판매 기금 100만 원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탁했다.
- 강원 강릉시지회(회장 전제철)는 지난해 12월 15일 시청에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820만 원을 기탁했다.
- 강원 동해시 발한동부녀회(회장 이영분)는 지난해 12월 29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2세대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 주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했다.



- 강원 삼척시 하장면부녀회(회장 황순임)는 지난해 12월 28일 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110만 원을 기탁했다.
- 강원 홍천군 남면협의회(회장 장동국)와 부녀회(회장 이정기)는 지난해 12월 15일 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 강원 횡성군 횡성읍협의회(회장 신승환)는 지난해 12월 21일 복지센터를 찾아 새마을운동지도자평가대회 상금 100만 원을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 강원 영월군 남면부녀회(회장 최경순)는 지난해 12월 14일 관내 경로당을 찾아 굴 42상자, 음료 21상자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김삿갓면부녀회(회장 엄기복)는 지난해 12월 7일 관내 어려운 불우이웃 40여 세대를 방문해 굴 56상자와 떡 6말을 나눴다.
- 강원 평창군 미탄면협의회(회장 이현승)와 부녀회(회장 지은미)는 지난해 12월 26일 면사무소에서 관내 12개 경로당과 홀몸

어르신 200세대에 직접 빚은 만두와 떡국떡, 과일 등을 전달했다.

탄소중립 실천

- 서울 영등포구 양평2동협의회(회장 이재홍)는 지난해 12월 13일 관내 도로변 가로수길 및 공원 등에서 자연 및 생태관리를 위한 대청소를 실시했다.
-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부녀회(회장 이영우)는 지난해 12월 1일 관내 센터에서 가로수 나무에 뜨개옷을 입혀주는 '나무안아주기 트리닝' 사업을 진행했다.
- 인천 연수구 연수2동부녀회(회장 한재분)는 지난해 11월 28일 복지센터에서 3R 자원 모으기를 통해 모은 재활용의류 400kg 및 캔 23kg을 매각하는 순환경제 활동을 실천했다. 옥련1동부녀회(회장 정정숙)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활용 의류 172kg과 캔 42kg을 매각했다.



- 인천 강화군 불은면협의회(회장 최진남)는 지난해 12월 12~13일까지 오두돈대에서 광성보로 이어지는 나들길과 해안 도로변의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방치 쓰레기와 생활폐기물 1톤 가량을 수거했다.
- 강원 홍천군 서석면협의회(회장 김남한)와 부녀회(회장 김옥자)는 지난해 12월 6일 체육공원에서 관내에서 배출된 투명 페트병 약 3톤을 전용 수거함으로 배출하고, 주민에게 에코백을 나눠주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도 펼쳤다.
- 강원 평창군 방림면협의회(회장 경민수)는 지난해 12월 8일 계촌1리에서 4리까지 하천 정화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제주 · 이북5도

공동체 문화 조성

- 부산 중구협의회(회장 이준호)와 남포동협의회(회장 박수철)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내 1인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시공과 장판 교체 등을 실시했다.
- 문고 부산 서구 남부민1동분회(회장 신운정)는 지난해 12월 2일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학을 맞은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과체험교실을 운영했다.
- 부산 동구 수정5동협의회(회장 임봉근)는 지난해 12월 5일 '사랑의 연탄배달' 사업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 가정에 연탄 200장을 전달했다.



- 부산 부산진구 청년새마을연대(회장 박승철)는 지난해 12월 19일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돕는 '실버가 지원' 사업을 펼쳐 관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 10명에게 보행 보조기를 전달했다.
- 부산 동래구 명장1동협의회(회장 이용호)는 지난해 12월 12일과 18일 관내 경로당 8곳에 과일과 쌀, 라면,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사직3동부녀회(회장 박무자)는 지난해 12월 12일 관내 일원에서 동지팔죽을 만들어 관내 저소득층 50세대에 전달했다.
- 부산 북구새마을회(회장 이세창)는 지난 1월 11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이동 세탁 차량을 이용해 화명1동·2동·3동, 금곡동 돌봄 가정의 이불 세탁을 지원했다.
- 부산 남구부녀회(회장 최영실)는 지난 1월 8일 UN기념공원 주차장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이불을 수거해 세탁하는 '사랑의 손길 새마을세탁' 활동을 추진했다. 감만1동부녀회(회장 박외숙)는 지난 1월 10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한 반찬 만들기와 배식 활동을 펼쳤다.



- 대구 중구 대신동협의회(회장 김시형)와 부녀회(회장 이명옥)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아 도배를 하고,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실시했다.
- 대구 동구 효목1동협의회(회장 서재훈)와 부녀회(회장 송미숙)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동촌유원지 해맞이공원에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 나온 시민들을 위한 '떡국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 대구 서구 평리3동부녀회(회장 정영경)는 지난해 12월 26일 연말 이웃사랑 나눔 활동으로 관내 중식당에 어르신 110명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했다. 이튿날 27일에는 평리2동협의회(회장 이원근)와 부녀회(회장 서경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10kg) 13포대를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대구 남구 청년새마을연대(회장 정희준)는 지난해 12월 23일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2023 사랑의 새마을 산타요정 출정식을 갖고 관내 저소득층 40세대에 크리스마스 선물과 케이크를 전달했다.



- 울산 중구 병영1동부녀회(회장 김노이)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떡국떡 70kg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문고 병영2동분회(회장 김경선)도 12월 14일 연말을 앞두고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24상자를 기탁했다.
- 울산 남구 옥동협의회(회장 양재오), 부녀회(회장 원치자), 문고(회장 지미숙)는 지난 1월 9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제주 · 이북5도

- 성금 5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에 전달했다.
- 직장 · 공장 수원시협의회(회장 안순근)는 지난해 12월 13일 관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8개소에 간편식(250만 원 상당) 꾸러미를 전달했다.
- 경기 고양시 탄현1동부녀회(회장 김위자)는 지난해 12월 2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 꾸러미 50상자를 마련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경기 용인시 성북동부녀회(회장 유미자)는 지난 1월 2일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사업으로 이웃에게 전달할 식료품 꾸러미(54만 원 상당)를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이동부녀회(회장 안순희)는 지난해 12월 29일 감골 어린이공원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을 위해 마련한 떡국떡과 라면 전달식을 가졌다.
- 경기 남양주시 청년새마을연대(회장 이선아)는 지난해 12월 26일 호평동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 및 독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경기 평택시 진위면협의회(회장 유형수)는 지난 1월 5일 휴경기에서 재배 · 수확한 콩 120kg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경기 의정부시 송산1동부녀회(회장 한미경)는 지난 1월 9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새해맞이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 경기 시흥시 정왕2동부녀회(회장 최미숙)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답은 수제만두 나눔' 활동을 추진해 관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6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 경기 김포시 사우동협의회(회장 권태욱)와 부녀회(회장 정영순)는 지난해 12월 15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소외계층을 위한 라면 50상자와 성금 130만 원을 전달했다.

- 경기 광명시 광명5동협의회(회장 황의경)와 부녀회(회장 박혜숙)는 지난해 12월 2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저소득층 학생 4명에게 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 제주 제주시 한림읍부녀회(회장 양정금)는 지난 1월 5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탄소중립 실천

- 부산 북구새마을회(회장 이세창)는 지난해 12월 27일 만덕2로에 조성한 새마을화단에 남천나무 20그루와 영산홍 450그루를 심었다.
- 문고 대구 남구지부(회장 강진규)는 지난해 12월 27일 고산골 맨발산책로, 앞산 자락길 일대, 빨래터 공원 등지에서 겨울 시화 배너기를 교체했다.
- 울산 남구 삼호동협의회(회장 최석진)와 부녀회(회장 최경숙)는 지난해 12월 1일 옥현초등학교와 관내 아파트 및 상가 가로화단에 겨울초화 500개를 심었다.
- 울산 동구 남목1동협의회(회장 윤재필)와 부녀회(회장 명호자)는 지난해 12월 21일 관내 삼지공원 내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배롱나무 20그루를 심었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1동협의회(회장 박만수)와 부녀회(회장 유영애)는 지난해 12월 22일 관내 주요 도로변과 골목길에서 환경정비를 위한 새마을준경 활동을 펼쳤다.
- 경기 안양시 부림동협의회(회장 김용욱)와 부녀회(회장 오세희)는 지난해 12월 7일 부안어린이 공원과 행정복지센터 인근 화단에 양배추꽃을 심는 환경정비활동을 실시했다.
- 제주 서귀포시부녀회(회장 나성순)는 지난해 12월 2일 예래생태체험관에서 커피찌꺼기로 친환경 비료와 방향제 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공동체 문화 조성

- 대전 동구 관암2동부녀회(회장 박인숙)는 지난 1월 4일 복지관에서 고등어조림, 건파래무침 등 밑반찬을 만들어 급식봉사를 펼쳤다.
-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오명관)는 지난해 12월 13일 소외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 등 관내 취약계층에 겨울 이불 24채를 전달했다.



- 광주 서구새마을회(회장 최덕환)는 지난 1월 1일 금당산에서 해맞이 등산객을 대상으로 떡국 봉사를 전개했다. 유덕동부녀회(회장 한의순)는 지난해 12월 29일 관내 홀몸 어르신과 복지관, 경로당 등에 떡국떡과 계란을 전달했다.
- 광주 북구 석곡동부녀회(회장 장인자)는 지난 1월 4일 북구청장실에서 새해를 맞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랑의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 충북 청주시 남이면부녀회(회장 성인락)는 지난해 12월 28일 복지회관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가정 등 25세대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오창읍협의회(회장 박종무)와 부녀회(회장 정진환)는 지난 1월 9일 관내 출산 산모에게 전할 '사랑의 미역'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 충북 충주시새마을회(회장 장상규)는 지난해 12월 8일 충주컨벤션센터에서 읍면동회장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동량면부녀회(회장 문은자)는 지난해 12월 7일 관내 어르신 27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펼쳤다.
- 충북 음성군 맹동면협의회(회장 전근성)와 부녀회(회장 이동순)는 지난 1월 1일 함박산 정상과 체육공원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에서 '떡국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직장 · 공장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오창수)는 지난해 12월 14일 매표읍과 가곡면의 취약계층 3세대에 연탄 600장씩을 전달했다.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협의회(회장 어현우)와 부녀회(회장 윤인숙)는 지난 1월 15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홀몸 어르신 가정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행복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했다.
- 충남 보령시 대천1동부녀회(회장 한은재)는 지난 1월 10일 사랑한식뷔페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 충남 서산시 지곡면협의회(회장 권상혁)와 부녀회(회장 이순호)는 지난해 12월 2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고 '떡국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충남 계령시부녀회(회장 이장미)는 지난 1월 10일 연화동회관에서 출산 장려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산모 11명에게 직접 끓인 소고기미역국 5일분을 전달했다.
- 충남 아산시협의회(회장 김동수)와 부녀회(회장 이연순)는 지난 1월 1일 남산 안보공원에서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모인 등산객에게 무료로 떡국을 전달하는 '해맞이 떡국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경북 구미시 선산읍부녀회(회장 박태임)는 지난 1월 11일 쌀, 참깨, 들깨 등 다양한 재료로 강정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 경북 경주시 동천동부녀회(회장 정혜량)는 지난 1월 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 10명에게 내복을 전달했다. 중부동부녀회(회장 장정희)는 지난 1월 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어려운 가정을 위한 장학금을 후원했다.

- 경북 김천시 대곡동협의회(회장 이도희)는 지난 1월 2일 관내 장기간 무단 방치된 폐자전거를 수거해 수리하여 관내 이웃에 무상 전달할 계획이다.
- 경북 경산시부녀회(회장 김인숙)는 지난 1월 5일 새마을회관 앞에서 사랑의 쌀 100포대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 경북 상주시 신흥동협의회(회장 이인규)와 부녀회(회장 김경숙)는 지난 1월 9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 경북 영덕군 병곡면협의회(회장 김문덕)와 부녀회(회장 김옥한)는 지난 1월 5일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행정지원센터에 전달했다.
- 경북 울진군 죽변면협의회(회장 금진강)와 부녀회(회장 전명화)는 지난 1월 9일 15개 마을 어르신 200명을 모시고 '효사랑 실천 사랑의 목욕' 활동을 실시했다.
- 경북 울릉군부녀회(회장 박명숙)는 지난해 12월 19일 섬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떡국떡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 등 150여 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탄소중립 실천

- 대전 동구 용운동협의회(회장 김학주)는 지난 1월 7일 관내 근린공원과 용운도서관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정리하는 새마을줍깅데이를 실시했다.
- 대전 유성구새마을회(회장 차정운)는 지난 1월 5일 새마을회관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매각했다. 원신흥동부녀회(회장 김정영)는 지난 1월 10일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스팩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 온천2동협의회(회장 오영환)도 지난 1월 11일 한빛아파트 내 아이스팩을 수거했다.
- 광주 광산구협의회(회장 유희권)는 지난 1월 6일 장수천에서 생태 하천 살리기를 위한 EM(유용미생물군) 활성액을 살포하고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 광주 동구 지산1동협의회(회장 윤승오)와 부녀회(회장 김진숙)는 지난해 12월 2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폐우유팩을 모아 화장지와 교환하는 자원재활용 순환경제활동을 펼쳤다.
- 충남 서산시 동문2동협의회(회장 문천식)와 부녀회(회장 최선미)는 지난 1월 5일 관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충남 예산군 삼교읍협의회(회장 안병노)와 부녀회(회장 박미자)는 지난 1월 3일 삼교교차로에서 철축나무 심기와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경북 안동시 강남동부녀회(회장 금점향)는 지난해 12월 26일 관내 미랜그린스토어에서 하천환경을 살리기 위한 EM(유용미생물군) 휴공을 만들었다.



- 경북 성주군 벽진면협의회(회장 김현수)와 부녀회(회장 백명순)는 지난 1월 10일 새마을창고에서 농약병, 영양제 통, 페트병, 빈 캔,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등을 분류하는 재활용품 분리 작업을 실시했다.
- 경북 문경시 점촌1동협의회(회장 전인표)와 부녀회(회장 이준심)는 지난해 12월 8일 돈달산 등산로에서 낙엽을 제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문경읍협의회(회장 윤정훈)와 부녀회(회장 양옥순)는 지난 1월 12일 새마을 농약 창고에서 농약 빈 병 수거 및 분류작업을 실시했다.



전북 · 전남 · 경남

공동체 문화 조성

- 전북 전주시 인후3동협의회(회장 황승일)와 부녀회(회장 박임순)는 지난 1월 11일 사랑의 '떡국떡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홀몸 어르신, 저소득 및 소외계층 등 1,200세대에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중앙동부녀회(회장 안상숙)은 지난 1월 9일 중앙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떡국을 40여 명의 어르신에게 직접 배식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 전북 정읍시 수성동부녀회(회장 안선순)는 지난 1월 13일 떡국떡과 사과육수 등이 담긴 꾸러미를 만들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 전북 남원시 송동면협의회(회장 이용근)와 부녀회(회장 박춘의)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6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가 관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150세대에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사업을 펼쳤다.
- 전북 완주군 고산면부녀회(회장 이경순)는 지난해 12월 18일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으며, 용진읍부녀회(회장 김정자)도 1월 12일 성금 5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읍사무소에 전달했다.
- 전남 목포시 신흥동부녀회(회장 조윤희)는 지난해 12월 1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녀회, 목포신협,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김치를 담가 관내 취약계층 45세대에 전달했다.
- 전남 여수시새마을회(회장 서근진)는 지난해 12월 20일 여수시 청년새마을연대(회장 김준한) 회원 및 지역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화재에 취약한 장애인, 홀몸 어르신, 경로당 등 60개소를 직접 방문해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집 주변 정리와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전남 순천시부녀회(회장 이연숙)는 지난해 12월 13일 직접 담근 고추장을 관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40세대에 전달하는

- '사랑의 고추장 온기 나눔' 활동을 펼쳤다.
- 전남 나주시부녀회(회장 김순례)는 지난해 12월 28일 사랑의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 장애가정 등 소외계층 115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송월동부녀회(회장 신순아)는 지난해 12월 19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60상자를 기탁했다.
- 전남 광양읍부녀회(회장 차도순)는 지난해 12월 29일 광양읍YWCA 무료 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및 식당 청소를 실시했다. 진상면부녀회(회장 최갑이)와 다압면부녀회(회장 심정애)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1일 각각 느랭이골 자연리조트와 무등암 등에서 지역민을 위한 '떡국 나눔'을 진행했다.
- 전남 담양군 무정면부녀회(회장 백형숙)는 지난해 12월 15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밑반찬 나눔'을 실시하고, 관내 소외계층 5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 전남 구례군 구례읍부녀회(회장 박인화)는 지난해 12월 12일 구례군보건의료원에서 김장 김치를 담가 전달했다.



- 전남 고흥군 금산면부녀회(회장 강정희)는 지난해 12월 21일 연말을 맞이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금산면사무소에 기탁했다.
- 전남 보성군 청년새마을연대(회장 임대일)는 지난해 12월 27일 보성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감자 10kg 100상자를 전달했다.
- 전남 화순군부녀회(회장 김덕희)는 지난 1월 4일 2024년 갑진년 신년 해맞이 행사장을 찾은 일반시민에게 '떡국 나눔' 활동을 펼쳤다.
- 경남 창원시 봉림동부녀회(회장 변은숙)와 의창동부녀회(회장

전북 · 전남 · 경남

- 이계임) 지난해 12월 4일 각각 장애인복지관과 소담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 직접 만든 밑반찬으로 급식 활동을 전개했다.
- 경남 진주시새마을회(회장 김기철)는 지난해 12월 4일 새마을회관에서 장수군새마을회장단을 초청해 새마을조직 간 연대와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새마을 조직 간 협력,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상생 방안 마련, 새마을운동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경남 통영시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새마을동아리(회장 정동원)는 지난해 12월 28일 회원 6명과 함께 명정동새마을공동체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에 참여해 일손을 보탬다. 브레드이발소 청년새마을연대(회장 박순정)는 지난해 12월 9일 락라(회장 황현숙) 청년새마을연대, 월광소나타 청년새마을연대(회장 임덕화) 회원들과 함께 브라우니 100개를 만들어 통영육아원에 전달했다.
- 경남 사천시 향촌동협의회(회장 이선민)와 부녀회(회장 최둘연)는 지난 1월 11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들과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회원들과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 경남 김해시 북부동협의회(회장 김용일)은 지난 1월 4일 북부동행정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 원을 기탁했다.
- 경남 밀양시 교동협의회(회장 이해식)와 부녀회(회장 정금자)는 지난 1월 1일 교동 추화산 정상에서 지신밟기, 새해 평안을 기원하는 기원제, 풍물공연, 떡국 나눔 등 2024년 갑진년 해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 경남 거제시 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전제룡)는 지난 1월 3일 대원 10여 명과 함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밑반찬 만들기 및 설거지 등 무료 급식 활동을 전개했다.



- 경남 양산MZ청년새마을연대(회장 박상옥)는 성탄절을 앞둔 지난해 12월 22일 따뜻한 희망 나눔 실천을 위해 관내 10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피자과 치킨을 전달했다.



탄소중립 실천

- 전북 정읍시새마을회(회장 김학구)는 지난해 12월 5일 내장산 생태공원 및 국립공원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및 분리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협의회(회장 박창수)는 지난해 12월 15일 면사무소 일원에서 농지오염 방지를 위해 영농 폐비닐 집중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같은 날 곡성읍협의회(회장 황자연)와 부녀회(회장 조쌍순)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



- 전남 구례군 간전면협의회(회장 이계순)와 부녀회(회장 이삼례)는 지난해 12월 13일 백운천 및 간문교 일원에서 새마을줍깅을 실시하고,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 경남 거제시 연초면협의회(회장 정종도)와 부녀회(회장 김정화)는 지난 1월 9일 폐농약병을 직접 수거·분리 작업하여 사천환경공단에 제공하였으며, 판매 수익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새마을 통통통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11+12월호 독자 의견 당첨자

박성훈

지구촌새마을운동 기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전개하는 새마을운동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새마을문고 경북 봉화군지부에서 운영하는 명품 만화방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활동임을 알게 되어 보기 좋았습니다.

박우영

에코백과 텀블러 등 친환경 상품이 유행과 인기에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것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식재료를 구매할 때 흙이 묻은 야채 등은 비닐봉지가 아닌 전용 에코백을 정해서 담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현우

K-며느리 크리스티나 씨의 소식이 반갑고 재미있었습니다. 새마을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훈훈해서 참 좋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지역 사회에 큰 즐거움이 되어주고 있는 명품 만화방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황승현

현장은 지금 코너를 읽다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2024년에도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해주실 전국에 계신 새마을지도자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SNS 구독하고 활동소식을 빠르게 만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이웃추가

